



13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소재 내각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집트軍 의회 해산·헌법효력 중지

정치개혁 본격 착수...“6개월만 국정 운영할 것”

무바라크 비리 수사...시위대 18일 ‘승리의 행진’

이집트 군부가 13일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집권 국민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헌법 효력을 중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정치개혁 절차에 착수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그의 권력을 넘겨받은 이집트군 최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군은 의회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 최고위원회는 또 구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헌 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 헌법안이 나오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회는 위원회가 국내외적으

로 이집트를 대표하며 임시적인 법을 제정할 권한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집트 과도내각도 이날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 처음으로 회의 열고 치안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아흐메드 파프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치안을 회복하고 시민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서민들의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최고위도 향후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 최고위는 노조와 각종 직능 단체의 모임을 차단함으로써 파업을 막고 시

민의 일상 복귀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에 이어 국영은행 직원, 철도, 경찰, 언론 등 기간산업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사회 불안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카이로 국영기관과 알렉산드리아 항구 등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은 13일 자신들이 속한 기관 수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시위대 일부 지도자들은 이날 군 최고위원회와 회동했으며 고무적인 결과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군 최고위원회를 대통령 선출 위원회로 조속히 재편하고 정치 수를 석방하는 등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18일동안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민주화의 성지로 부상한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일대에는 이번 시민혁명 이후 처음으로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많은 시민은 이날 빗자루를 들고 타흐리르 광장을 찾아 쓰레

기를 치우고 비닐 천막과 텐트 등을 걷어내며 시민혁명의 성공을 자축했다.

시위대는 18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기념하는 ‘승리의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 2000여명은 이날 내무부 청사 앞에서 “경찰과 시민은 하나다”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지난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대해 사과와 뜻을 나타내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시한 알-아들리 전 내무장관의 처벌을 촉구했다. 공무원들이 청사 곳곳에 걸린 무바라크 대통령의 대형 사진을 내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한편 이집트 검찰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 정권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하비브 알-아들리를 상대로 13일부터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사법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또 이집트 법원은 알릴 마지드 마무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아들리와 그의 부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삼각벨트 논리 대국민 홍보 하겠다”

姜 시장 과학벨트 광주 유치 ‘올인’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민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연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결정, 광주유치에 필요한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강 시장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텃밭인 광주의 이익을 외면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우세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시장은 R&D(연구·개발) 특구지역인 광주와 대전, 대구에 과학벨트 본원과 본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삼각 벨트’ 논리를 개발한 데 이어 광주와 국회에서 과학벨트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와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과학벨트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강 시장은 1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라고 말했고, 총리와 주무 장관도 심

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며 “과학계에서 공론화를 할수록 과학 벨트 입지로 광주가 유리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 과학계를 상대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과학벨트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에 80곳이나 있고, 이화학 연구소도 전국 10곳에 분산돼 있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독일은 19명, 일본은 9명을 배출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 벨트의 분산배치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수도권에 과학벨트를 두자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단연코 반대하고, 충청권 유치 주장은 독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과학벨트 광주유치와 삼각 벨트 논리와 관련해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조만간

과학 벨트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과학계, 언론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실무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대책기구는 ▲과학계 스스로 검증토록 공론화 과정 뒷받침 ▲정부와 청와대 상대 설득 ▲국회차원 특별법 입법활동 지원·홍보 ▲왜 광주·전남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제시된 과학벨트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이 가장 유리하지만, 외국의 선형적 사례나 국민통합을 감안해 삼각벨트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결코 갈등 구조가 아닌 국민통합,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찬반논란 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

시의회 교육위 난항 끝 처리...18일 본회의 상정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해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위원이 개편안에 대한 장황국 교육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5시간여 동안 정회를 거치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조례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원회는 정회과정에서 신설되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직제와 현안 업무에 대한 실·국장 사전협의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인설관(爲人說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준 데 대해 결국 시간만 낭비한 채 시교육청의 인사만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를 거쳤으나,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놓고 위원들 간 찬반의견이 갈려 의견을 보류했었다.

개편안은 현재의 1 담당관 2국 10

과 48개팀을, 2 담당관 2국 9개 과 45개팀으로 변경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놓고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과 교총 출신 교육위원들의 의견이 상반됐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시 교육위는 이날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채 개회를 선언했다가 불과 5분 만에 정회에 들어간 뒤 5시간여 동안 일방적으로 자체 간담회를 진행해 반축을 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뺏다방’ 실버감시단 발대식약칭, 노인 1240명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능을 부풀린 건강식품 판매행위인 속칭 ‘뺏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등 소속 어르신으로 구성되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식약청은 또 평교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에 뺏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연합뉴스

老-老 케어 일자리 1만개 늘린다

복지부, 연내 노인일자리 20만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 일자리를 새로 1만개 늘리는 등 올해안에 노인 일자리를 모두 2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노-노 케어 일자리를 모두 4만4000개로 작년보다 1만개 늘리고 사업 지역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노 케어를 포함한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18만6000개에서 올해 20만개로 1만4000개가 늘어나게 된다.

노-노 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 청소, 말벗, 세탁, 취사, 설거지 등 일상생활을 도와 줌으로써 일을 원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만족도 높은 노인 일자리 유형의 하나로 꼽힌다.

2~3월 중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취업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노-노 케어,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복지형, 스포츠공통 지원, 자원재활용, 환경개선 등 공익형, 숭례산 및 문화재 해설, 예술·한자교육 등 교육형 등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이 있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지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인 알레르기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레르기 항원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없이 다스린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지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끈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장애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완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동이다. 이 유근피동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만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승려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승려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완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완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090204-중-4738호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남성 휴대용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급을 향하는데 거기에서 한층 더 매력적인 향랑거리는 매력적인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가슴과 신체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체중이 40kg 정도인 생사인인 핏갈린다. 반응적이지 않으며 해사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 병의 예방도 된다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리다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수입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4114-09 우회점

1577-4101

010-8558-4114, 010-8952-4114

정품! 정량!! 난방유 SK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한드림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시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